

품위있게 떠날 권리...구례군 '웰다잉' 바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 3년째 1200건 등록...전체 인구의 5.6% 인공호흡기 등 의료행위 거부...초고령사회 '웰다잉' 조례 제정 시급

잘 죽기 위한 '웰다잉' (존엄사) 문화가 구례지역에서 힘을 얻고 있다.

20일 구례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연명 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자가 구례지역에서 이달 현재 1200명을 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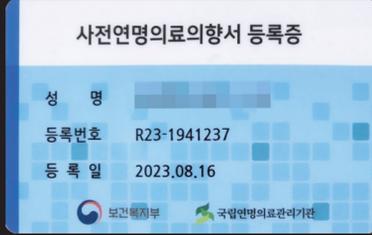
이는 구례지역 19세 이상 인구 2만2046명의 5.6% 비중으로, 전국 평균 비중 4.7%(204만명)을 웃돌았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웰다잉'의 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에 등록하면 치료 효과가 분명하지 않아도 임종 기간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수혈, 체외 생명 유지술, 혈액 투석, 혈압 상승제 투여 등 7종의 의료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의료원, 보건소, 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가연명의료기관에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며, 스스로 의사에 따라 변경·철회할 수 있다. 전국에 지정된 국가연명의료기관은 667곳이 있다.

구례에서는 보건의료원에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은 '웰다잉'으로 불리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8년 8월 4일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구례군은 지난 2021년 3월 21일부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접수를 시작했다.

구례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 비율

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웰다잉 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향서를 낸 한 구례읍 주민(66)은 "평생 쓰는 의료비 대부분을 죽기 일 년 안에 쓰는 연명 치료는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다"며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제정될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길선 구례군의회 의원은 "웰다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의회 집행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으며, 구례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도 "시간을 두고 관련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순천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 나서

전문가 협의체 구성...승주읍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모 참여 등

'바이오산업 전진기지'를 내건 순천시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를 나섰다.

순천시와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소는 최근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자문 회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전문가 협의체는 전남도 농업정책과, 농촌진흥청, 전남 바이오 연구기관, 순천대학교, 산업체 등이 동참했다.

그린바이오는 생명공학이 농수산 분야에 응용된 산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구 장비와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학·연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공모 신청을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순천시는 바이오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했다.

내년에는 승주 그린바이오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공모 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다.

승주읍 일원은 '바이오산업 혁신 거점' 조성을 목표로 바이오 특화 지식산업센터 건립 설계 공모를



순천시가 최근 개최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유치를 위한 전문가 협의체 1차 자문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진행하고 있다.

또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의 하나로 그린바이오 분야 전주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고, 바이오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연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글로벌대학30

과 연계해 전문가 협의체를 확대·조정하고,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와 순천대학교는 지난 13일 교육부 글로벌대학30 최종 선정과 함께 그린스마트팜(첨단농장) 산업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연말까지 '여순사건 희생자 신고' 접수

곡성군이 연말까지 '여순사건 희생자 신고'를 받는다.

'여순사건 희생자 신고 접수'는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여순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후유장애자·수행자와 군인, 경찰, 일반인 모두가 신고 대상이다.

희생 사건 기간은 여순사건 발생일인 1948년

10월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1일까지다.

곡성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신고 접수와 관련 상담을 벌일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단 한 명의 희생자라도 더 발굴해 그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스러진 영혼들의 한을 풀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안전 D등급' 순천만 용산전망대 21일부터 폐쇄

순천만 용산전망대(사진)가 안전점검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21일부터 폐쇄된다.

순천시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순천만 용산전망대를 이날부터 긴급 폐쇄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용산전망대에서 구조물 이상이 감지되면서 순천시가 전문가에게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D등급은 주요 부재(뼈대)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순천만 용산전망대는 지난 2010년 지상 2층 목구조형식으로 설치됐다.

우리나라 최대 갈대군락지인 순천만 습지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다.

순천시는 전반적인 시설물 부식으로 인한 안전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선제 조치로 긴급 폐쇄를 결정했다.

용산전망대는 경제적·안전성 등을 고려해 전면 철거한 뒤 재건축할 계획이다.

폐쇄 기간 용산전망대의 450m 후방에 있는 보조 전망대까지는 진입할 수 있다.

순천시는 보조 전망대 주변 경관을 정비해 관람객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만의 명소인 용산전망대가 긴급 폐쇄돼 안타깝지만, 시민과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책인 만큼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도립미술관 도시바람길숲 완공

나무 4300여주 식재...백운산·서산 맑은 공기 도심으로 연결

전남도립미술관 인근에 1.5ha 규모 도시바람길숲이 완공됐다. <사진>

광양시는 광양을 전남도립미술관 인근에 산림의 찬 공기를 확산시키고 기온 차를 통한 미풍을 생성하는 도시바람길숲(디담·확산숲) 조성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시바람길숲은 총사업비 12억원을 들여 지난 6월 착공한 뒤 최근 완공됐다.

나무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양질의 토사와 토양개량제를 활용했다.

이곳에는 푸조나무와 팽나무 등 키가 큰 나무 302주를 심었다. 주변 녹지공간에는 남천·목수국 등 키 작은 나무 약 4000주와 다양한 초화류를 심었다. 이들 식물은 냉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밀한 식생 유형으로 배식했다.

광양시는 전남도립미술관 주변을 도심의 열 환경을 개선하는 최적의 거점 숲 대상으로 여겼다.

광양읍 중심지역에서 백운산과 서산에서 생성되는 찬 공기가 서천과 연결되면서 찬 공기를 도심권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방식이다.

광양시는 광양의 문화·예술 대표 명소인 전남도립미술관과 함께 녹색관광자원으로의 가치성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지난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100억원 포함 총사업비 200억원(설계비 10억원·사업비 190억원)이 들어간다.

연차별(설계 1년·시공 3년)로 추진되고 세 가지 유형의 숲으로 구성된다.

숲 유형은 ▲야간의 찬 공기가 정화돼 차고 깨끗한 공기를 생성하는 '바람생성숲(산림) ▲산림-도심을 연결하는 하천변, 가로녹지로 찬 공기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연결숲(하천·가로) ▲공원·대면적의 녹지, 벽면 녹화 등으로 도심에 조성하는 '디담·확산숲(도심의 공원) 등이다.

광양 도시바람길숲 1차년도 사업 대상지는 와우근린공원(2개소)과 마동근린공원 등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최근 조성을 마무리한 도립미술관 주변 이외에도 강가 녹지를 활용한 '연결숲'인 서천천 주변과 '디담·확산숲'인 장애인복지관 주변 눈소공원이 공사를 마쳤다.

광양시는 이른 시일 안에 중마동 백운로(마동정수장~금호대교 구간)와 중마중앙로(중마시장~길호대교 구간) 연결공사를 입찰 공고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 섬박람회 '다섬이' 이모티콘 선착순 무료

22일 오후 2시부터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캐릭터인 '다섬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2만 6000명에게 선착순 무료 배포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2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공식 출범을 앞두고, 섬박람회 성공 개최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모티콘은 지난해 개발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EI(Event Identity) 디자인을 활용, 소셜 메신저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친근하게 사용하는 동작 16종으로 구성됐다.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창에 '힐링여수'를 검색해 친구추가하면 된다. 사용 기간은 다운로드 이후 30일간이다.

기존 구독자는 채널을 차단하고 오후 2시 이후 다시 채널을 추가하면 이모티콘을 내려받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전국민에게 알릴 섬박람회 인지도 제고와 성공 개최에 밑거름이 되는 만큼 여수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정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광양시, 체육발전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유아~노년 체육 프로그램 개발...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체육 강화

광양시가 오는 2028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체육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

광양시는 최근 성황다목적체육관에서 '광양시 체육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임체가 광양시 관광문화환경국장 과 관계 부서장, 체육회 회장, 장애인체육회 상임 부회장 등 체육단체 임직원이 참석했다.

최종 보고회에서는 지난 8월 열린 중간 보고회에서 나온 제안을 반영하고 보완한 내용이 발표됐다.

전문 체육·생활 체육·학교 체육 등 분야별 발전 전략과 광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체육시설 특화전략 등이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광양시는 유아에서 노년까지 이어지는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통합 체육을 강화한다.

체육시설 확충 분야에서는 서부권(광양읍권) 스포츠타운화, 동부권(중마권)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제안했다.

광양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나온 추가 제안사항과 토론 내용 등을 반영해 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광양시 체육발전 종합계획은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임체가 광양시 관광문화환경국장은 "최종보고회에 제시된 안전과 보완사항을 반영해 향후 스포츠시설확충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체육 활동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체육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